

1주차 (6월 6일)

■ 지역교회 선교위원회의 역할

1. 선교위원회와 선교단체의 협력, 동원, 교육,

(1) case study (negative teaching)

case 1: 주일 예배 후 모인 선교위원회에서 J 장로의 선교사 허입 건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다. 10명의 선교 위원들 가운데 대다수는 J 장로가 선교사로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타문화 지수가 낮았고, 나이 60대 후반으로 선교지 적응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J 장로의 부인은 저혈압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교 위원들은 J 장로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case 2: A 선교사는 남미에서 20년 동안 사역했다. 처음에는 빈민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학교 사역을 하겠다며 교회에 신학교 건축을 위해 30만 불을 모금해갔는데, 최근에 시설을 증축해야 한다며 10만 불을 더 요구했다. 하지만 몇 명의 선교 위원들은 A 선교사의 재정 사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A 선교사가 창립 멤버인 원로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case 3: C 교회는 교회 주변에 있는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해서 교회 안에 모임을 만들었다. 인도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꽤 되어서 셔틀 버스를 주일마다 운영하기로 했다.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50명을 넘어가게 되어 선교 위원회에서는 인도 목사님을 초청하기로 하고 인도 목사님께 매월 사례를 \$2,000 씩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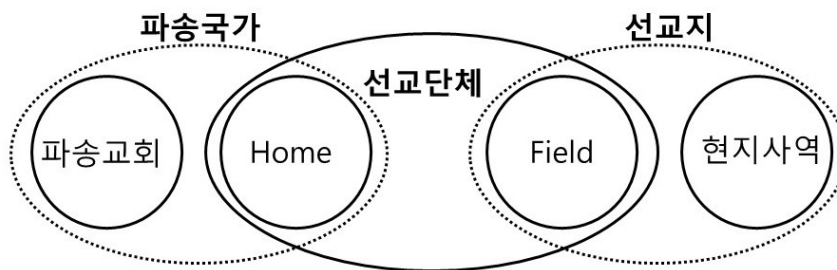
case 4: 어떤 교회가 매달 10만원씩 후원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선교 위원장이 메일을 보내왔다. 18가지 서류를 한 달 안에 교회 선교 위원회에 보내라는 것이었다. 18가지 서류에는 건강 검진 결과, 모든 후원 내역, 모든 후원의 지출 내역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었다. 전화를 걸어서 왜 이런 서류가 필요한 지를 물었다. 그러자 선교 위원장은 ‘그냥 교회에 보관하려고’ 한다고 했다.

* 그룹토론: 무엇이 문제인가?

(2) 하나님 나라의 관점 (Kingdom Perspective)

- 지역 교회의 어젠다보다 큰 시각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 지역교회의 선교단체의 역할과 선교단체



3. 지역 교회의 선교위원회가 선교 단체보다 더 잘하는 일

- (1) 선교사 선발
- (2) 선교 훈련
- (3) 기도와 돌봄
- (4) 본국 사역 선교사 관리
- (5) 동원

4.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 전문성의 부재
- 인력의 한계
- 선교사들에게 주는 부담

5.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 혐의 협력

◇ 지역 교회와 선교 단체 사이의 협력 관계의 종류 ◇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
건전한 단체	이상적 파트너십	갈등적 파트너십
건전하지 않은 단체	피해의식 파트너십	없어야 할 파트너십

여기서 건강한 교회란 하나님의 나라(Kingdom Perspective) 차원에서 선교를 생각하는 교회다. 교회 자체의 어젠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교회를 말한다.

건강하지 않은 교회란 선교를 자기 교회의 어젠다(agenda)를 위해 이용하는 교회다. 예를 들어 지역 교회의 지교회를 선교지에 세우고 싶든지, 선교를 교회 부흥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경우다. 더 최악의 경우는 은퇴하거나 사역을 그만 둔 목사나 장로들의 다음 사역지로 선교를 생각하는 경우다.

건전한 선교 단체란 GAMP에 의해서 선교를 진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건전하지 않은 선교 단체란 GAMP를 무시하고 선교를 진행하는 선교 단체를 말한다.